

멜랑콜리 개념의 기원과 분화를 통해 본 몸과 마음의 관계* **

여인석(연세의대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주요어】 흑담즙, 멜랑콜리, 체액설, 몸과 마음의 관계

【요약문】 멜랑콜리는 고대 서양의학의 중요한 이론인 4체액설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흑담즙의 과잉으로 초래된 병적인 상태는 몸의 여러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특히 감정과 행동에 비정상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른 세 개의 체액과는 달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체액인 흑담즙은 그 가공성으로 인해 기원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원래 의학적 개념으로 시작된 멜랑콜리는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으며 이후 의학만이 아니라 문학을 비롯한 폭넓은 영역에서 사용되었다. 멜랑콜리는 고대인들이 인간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생각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것은 고대인들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근원이 인간의 몸과 그 생리학적 작용에 있다고 생각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멜랑콜리 개념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에도 생각해 볼 지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 접수일자: 2020.6.26., 심사완료일자: 2020.6.28., 게재확정일자: 2020.6.29.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2018S1A5A2A03029829).

1. 서론

몸과 마음의 관계는 중요한 철학적 탐구의 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고대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탐구는 진행 중이다. 이처럼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는, 혹은 논의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몸에 대한 지식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발전된 당대의 의학 지식은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그에 자극받아 이 오래된 철학적 주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풍부해진다. 현대 뇌과학의 발전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철학적 주제에 대한 논의는 당대 의학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학에서 유래한 개념은 이 문제의 탐구 과정에서 단순히 의학적 논의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영역을 넘어 인간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서양 고대의학에서 유래한 멜랑콜리가 그 좋은 사례이다.

사실 멜랑콜리는 문제적 개념이다. 멜랑콜리라는 용어와 그것이 내포하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 특히 기원전 5세기 무렵의 히포크라테스 시기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개념은 명료하게 이해되고 제시되기보다는 상당히 모호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승되고 사용되어왔다. 멜랑콜리 개념의 모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서양문명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다. 멜랑콜리는 그것이 원래 기원한 의학의 범위를 넘어 문학과 예술 등 인간을 설명하는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었고, 그 결과 멜랑콜리에 대한 방대한 문헌들이 축적되었다.

멜랑콜리 개념의 모호성과 복잡성의 원인은 이 개념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로 올라가 그 기원을 더듬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

다. 먼저 용어적 측면에서 구별할 내용은 ‘멜랑콜리(melancholia)’와 ‘흑담즙(melaina cholē)’이다. 일반적으로는 흑담즙의 과잉으로 인해 초래된 인체, 혹은 인간 정신의 특정한 상태를 멜랑콜리로 이해한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념의 모호함이란 문제는 남는다. 그것은 멜랑콜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흑담즙이 모호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인체의 다양한 현상을 네 가지 체액으로 설명했다.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 그것이다. 여기서 혈액은 설명이 불필요한 체액이고, 점액은 주로 얼굴에서 배출되는 다소 끈끈한 체액, 즉 콧물이나 침을 말한다. 황담즙은 흔히 볼 수 있는 체액은 아니지만 심한 구토의 경우 드물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체액이다. 문제는 흑담즙이다. 흑담즙은 다른 체액과는 달리 우리가 인체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체액이 아니므로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이미 고대에서부터 의견이 분분했다. 최근에는 이를 완전히 가공의 체액, 즉 고대인들이 만들어 낸 상상력의 산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내장에서 출혈이 일어난 이후 바깥으로 배출된 검붉은 색의 혈액을 흑담즙으로 보았다는 견해도 있다.

모호함은 흑담즙의 실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흑담즙의 과잉으로 초래된 병적 상태인 멜랑콜리 자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인 개념이다. 흔히 멜랑콜리를 우울증과 동일시하지만 용어의 기원을 따져보면 멜랑콜리는 상반된 상태들을 동시에 지칭하는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그것은 광증과 우울증, 선천적 질병과 후천적 질병,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모두 포괄한다. 기원에서부터 관찰되는 이러한 모호함이 아마 후대에 멜랑콜리에 대한 방대한 문헌이 산출된 하나의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멜랑콜리 개념의 이러한 모호함과 복잡함은 달리 보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내재하는 모호함과 복잡함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양 고대의학에서 유래한 멜랑콜리 개념의 기원과 그 의학적 분화 및 발전 과정을 추적해봄으로써 이 개념을 둘러싼 고대인들의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더듬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의 논의를 통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탐구에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2. 히포크라테스적 기원

멜랑콜리라는 용어가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이다. 멜랑콜리는 『전집』에 속하는 여러 편의 글에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글들이 저술된 시기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일부의 글은 상당히 후대에 저술되었다. 그리고 멜랑콜리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이미 『전집』 내부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우선 이 용어가 등장하는 각 글들의 분석을 통해 용어의 기원과 의미의 분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저술 시기만을 놓고 볼 때 멜랑콜리에 대한 가장 이른 언급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저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로 볼 수 있다.¹⁾ 이 글의 저자는 계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체질이 점액성인 사람과 물기가 많은 사람들 및 여성에게는 특히 이로운 데 반해, 체질이 담즙성인 사람에게는 더없이 해롭다”²⁾고 말한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해진 결과 “그들에게는 건조성 안질과 급성

1) Flashar(1966), p.21.

2) 여인석·이기백 역(2011), 58쪽.

혹은 만성 열병이 생기며, 어떤 이들에게는 멜랑콜리(melancholia)까지 생긴다.”³⁾

일단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체질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서는 점액이 우세한 점액성 체질과 담즙성 체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흑담즙이 우세한 흑담즙 체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본다면 흑담즙 체질은 담즙성 체질의 하위 분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저자가 흑담즙 체질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흑담즙’이란 용어조차도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등장하는 것은 ‘멜랑콜리’라는 용어일 뿐인데 여기서는 체액의 일종이 아니라 안질, 열병과 더불어 질병의 한 종류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어의 구성상 담즙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검은색을 띤다는 정도는 유추할 수는 있다. 그러나 먼저 흑담즙의 존재를 상정하고, 그 과잉의 결과로 멜랑콜리가 초래된다는 후대의 추론은 아직 정당화되고 있지 않다.

멜랑콜리라는 말은 이 글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에서 오직 여기서 한 번만 등장하므로 우리는 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더 이상 알아내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아직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흑담즙의 단서는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담즙에서 가장 습하고 물기 있는 부분이 소모되는 데 반해 가장 끈적하고 쓴 부분은 남기 때문이다. 이것들[끈적하고 쓴 부분]로 인해 이 질병들이 그들에게 생긴다.”⁴⁾ 여기에 흑담즙이란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흑담즙이 담즙에서 습한 부분이 제거되고 남은 끈적하고 쓴 부분이라는 암시와, 바로 그것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질병들이 생긴다는 저자의 설명을 읽게 된다. 만약 우리가 담즙의 끈적하고 쓴 부분을 흑담

3) 여인석·이기백 역(2011), 58쪽.

4) 여인석·이기백 역(2011), 59쪽.

즙이라 부르는 데 동의한다면 흑담즙은 멜랑콜리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안질과 열병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난감한 점은 저자가 멜랑콜리를 질병이나 병적 상태의 하나로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며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함께 언급되고 있는 질병들을 볼 때 저자가 멜랑콜리를 염증이나 열병과 같은 계열의 질병으로 보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다. 멜랑콜리를 열병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 텍스트도 있다. 특히 『유행병 III』의 저자는 멜랑콜리가 있는 사람은 ‘카우소스’⁵⁾라는 열병에 걸린다고 말하기도 한다.⁶⁾ 나아가 『인간의 본질』의 저자는 흑담즙이 곧 사일열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주기적인 발열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에 관심이 많았고, 그 특징적인 주기성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인간의 본질』에서는 지속열, 매일열, 삼일열, 사일열을 담즙의 양을 통해 설명한다. 즉 뜨거운 성질을 가지는 담즙이 지극히 많고 순수한 경우에는 쉽사리 발열하는 지속열이 생긴다. 지속열보다 담즙의 양이 조금 적을 경우는 중간에 휴지기가 있는 매일열이 생긴다. 그리고 매일열보다 더 적은 양의 담즙에 의해서는 하루건너 발열이 있는 삼일열이 생긴다. 여기서 중간 휴지기가 길어질수록 열병을 앓는 전체 기간은 그만큼 더 길어진다. 마치 각 열병이 일정한 보존량을 갖고 그 안에서 발열의 양을 나눠 갖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일열의 설명도 동일한 논리의 연장이다.

즉 사일열은 삼일열보다는 “뜨거움을 낳는 담즙의 몫을 더 적게 갖고, 몸이 차게 되는 시간을 더 길게”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

5) ‘카우소스(kausos)’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 자주 언급되는 열병이나, 그에 대한 기술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현대적 질병명을 찾기는 어렵다. 카우소스는 ‘탄다’는 의미의 ‘kauein’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카우소스를 영어로는 ‘ardent fever’라고 번역한다.

6) *Epidemi III*, 3.98. L.

만이 아니다. 사일열의 경우는 특이하게 흑담즙이 관여하여 “과도한 지속성과 치유되기 힘든 성질이” 더해진다. “왜냐하면 흑담즙은 몸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점성이 있고, 가장 오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⁷⁾

참고로 플라톤도 『티마이오스』에서 주기적 열병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역시 유사한 논리에 의거하여 이 열병들의 주기성을 설명한다. 플라톤은 담즙과 같은 체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원소의 성질을 통해 발열의 주기성을 설명한다.

주로 불의 지나침으로 인해서 몸이 병났을 때는 지속적인 발열과 열병을 일으키나, 공기의 지나침으로 인해서는 매일열을, 물의 과다로 인해서는 삼일열을 일으키는데, 이는 물이 공기나 불보다도 활기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한데, 흙의 지나침으로 인해서는, 넷 중에서 흙이 가장 활기가 없는 것이어서, 시간적으로 네 배가 걸려서 정화되는데, 사일열을 생기게 해서 가까스로 벗어나게 합니다(86a).⁸⁾

의사가 아닌 플라톤이 이러한 주기적 발열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설명하기 위해 나름의 이론을 제시한 것을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이 열병이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분명한 듯하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 말라리아가 중요한 질병이었고, 말라리아를 통해 고대 그리스 역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많은 부분을 영어로 번역한 고전학자 존스(W. H. S. Jones)였다. 히포크라테스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의학사에 관한 많은 업적을 남겼던 존스는 말라리아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는 『말라리아와 그리스 역사』라는 저술을 통해 말라리아가 고대 그리스 역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⁹⁾

7) 여인석·이기백 역(2011), 209쪽.

8) 박종현·김영균 역(2000), 239쪽.

때로 그의 이런 주장은 말라리아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서 한때 그는 학계에서 ‘Malaria Jones’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물론 존스가 말라리아를 과도하게 취급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특정한 질병을 고대 그리스사의 설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상당히 선구적인 업적이다. 그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는 흑담즙과 말라리아의 관계, 다시 말해 멜랑콜리와 말라리아의 관계를 말함으로써 근대 이후 문학적인 용어로서만 사용되던 멜랑콜리에 의학적 의미를 재부여하는 중요한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존스가 멜랑콜리는 말라리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흑담즙이 사일열의 원인이라는 설명만은 아니다. 존스가 제시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멜랑콜리가 봄과 가을에 많다는 『경구』의 기술이다.¹⁰⁾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여름에 많지만 여름에 모기에 물리더라도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이후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치므로 실제로 발병은 가을에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존스는 멜랑콜리가 말라리아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멜랑콜리는 단순히 열병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증상을 가진 질병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멜랑콜리라는 용어에 내포된 감정적·정신적 변화의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 멜랑콜리와 관련되어 언급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증상들을 존스는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본다. 즉 섬망 증상의 경우 고열에서 흔히 동반되며, 무력감과 정서의 전반적 저하 양상은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설명 가능하다. 실제로 존스는 멜랑콜리가 말라리아에 의해 초래된 모든

9) Jones(1909).

10) *Aph.* 4, 494, 16 L.; 4, 496, 8L. 다만 여기서 멜랑콜리만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광증과 간질을 포함하여 십여 개의 질병이 봄에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을도 마찬가지이다.

종류의 육체적·정신적 쇠약(prostration) 상태이며, 그 가운데 한 형태인 사일열이 흑담즙에 의해 생긴다고 생각했다.¹¹⁾

멜랑콜리의 원인이 말라리아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존스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한다. 첫 번째는 멜랑콜리는 흔히 육체적 쇠약의 결과인데, 쇠약함은 말라리아에서 온다. 실제로 말라리아에 걸리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쇠약해진다.¹²⁾ 두 번째는 말라리아가 빈혈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가을, 비장 팽대, 사일열 등이 말라리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비장 팽대는 말라리아의 전형적 증상의 하나로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언급이 없으나 갈레노스가 이에 대해 언급했다. 갈레노스는 『경구』에 대한 주석에서 사일열이 비장과 멜랑콜리와 관련이 있다는 언급을 한다.¹³⁾

3. 흑담즙의 기원

멜랑콜리는 흑담즙의 과잉상태이다. 따라서 멜랑콜리의 기원은 흑담즙의 기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체액들의 경우는 비교적 손쉽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흑담즙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기원과 관련해 여러 이론이

11) Jones(1985), p.lviii.

12) 말라리아는 크게 네 종류가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온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삼일열, 혹은 온대열 말라리아이다. 이는 뒤에 설명할 열대열 말라리아와는 달리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환자의 활동력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열대지방처럼 더운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말라리아로 치명적이고 증상도 훨씬 심하다. 지중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열대열 말라리아이다.

13) *Galen comm. I. in Hippocr. apho...*17/b, 385, Kühn.

존재했다. 나아가서 흑담즙은 다른 체액과는 달리 단순히 상상의 산물이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흑담즙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담즙의 일부이고 그런 의미에서 담즙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공유한다. 실제로 선혈이 아니라 소위 ‘죽은피’는 검붉은 색을 띠고, 그 때문에 체내에 일어난 출혈이 체외로 배출될 때 검은색을 띠 수 있어 이것이 흑담즙의 존재를 상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앞서 지적했다.

갈레노스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검은 피(melanos haimatos)와 흑담즙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지적했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응고 여부에 있다. 즉 피는 응고되지만, 흑담즙은 응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⁴⁾ 우리가 흑담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토물, 배설물, 소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이다. 흑담즙은 담즙의 일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로 소화관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체의 장기들 중에서는 비장이나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¹⁵⁾

그런데 멜랑콜리와 흑담즙의 기원과 관련해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소변과의 연관성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멜랑콜리, 혹은 흑담즙과 소변의 연관성은 언급되고는 있으나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유행병 III』에서 저자는 열병을 앓는 여성 환자에 대해 기술하며 이 환자의 소변이 검은색이며 혼수상태에 빠져있고, 음식을 거부하며 마음이 멜랑콜리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¹⁶⁾ 실제로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증상은 말라리아 환자의 증상에 부합한다. 특히 검은 소변은 열대열 말라리아의 중요한 증상의 하나로 이 증상에 초점을 맞춰 검은 소변을 주증상으로 하는 열대열 말

14) *De atra bile*, 5. 110, Kühn.

15) Siegel(1968), pp.258-264.

16) *Epidemi III*, 3.112 L.

라리아를 ‘흑수열(黑水熱, blackwater fever)’이라고 하기도 한다. 말라리아는 기본적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 내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질병이다. 열대열 말라리아에서 파괴된 다량의 적혈구가 소변으로 배출되어 소변이 검은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즉 말라리아가 지중해 연안의 풍토병으로 많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환자들의 오줌이 검은색을 띠는 것을 보고 이 검은 액체의 기원을 흑담즙이라고 상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일열을 흑담즙과 연결시킨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흑담즙이 특정 질환이나 증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흑담즙이 특정 질환의 원인으로 제시되는가, 아니면 일종의 동반 증상 내지는 동반 현상으로 제시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멜랑콜리를 언급한 다양한 문헌들에서 이들은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의학적 맥락에서는 흑담즙의 과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더욱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그에 반대되는 견해를 분명히 밝힌 경우도 있어 흥미롭다. 예를 들어 1세기 경의 의학자 카엘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멜랑콜리라는 명칭은 환자가 자주 흑담즙을 토한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희랍인들은 검은다는 것을 ‘멜라스(melas)’라고 불렀다. 멜랑콜리라는 명칭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흑담즙이 이 질병의 원인이란 관념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¹⁷⁾

인용문의 저자는 이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멜랑콜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혼란스럽고 모호하게 남아 있는 멜랑콜리 개념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17) Caelius Aurelianus, *Tardium passionum* I, 180.

4. 멜랑콜리 개념의 분화

멜랑콜리 개념은 크게 두 방향으로 분화된다. 육체적 질병, 혹은 그와 동반된 증상으로서의 멜랑콜리와 정신적 질병으로서의 멜랑콜리이다. 육체적 질병으로서의 멜랑콜리는 열병인 말라리아와 그에 동반된 증상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멜랑콜리는 점차 정신적인 자질이나 정신적 상태, 혹은 감정적 상태와 관련되어 언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화는 상대적으로 후대에 이루어지며, 이후 멜랑콜리 개념은 주로 정신적, 감정적 차원의 문제로 전개되고 발전된다. 그러나 이런 방향의 단초는 이미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 발견된다. 『경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두려움과 슬픔이 오래 지속되면, 그러한 상태는 멜랑콜리이다.”¹⁸⁾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감정과 같이 다소 모호한 대상을 흑담즙이라는 구체적인 실체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⁹⁾ 즉 의학적 실체인 흑담즙이 과거 철학의 대상이었던 감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멜랑콜리가 의학적 사유 가운데서 철학을 향해 가장 돌출되어 나온 부분이란 평가가 가능해진다.²⁰⁾

멜랑콜리를 정신적, 혹은 감정적 측면의 문제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텍스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 30-1이다. 멜랑콜리와 흑담즙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는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철

18) *Aphorismi*, 6.23 IV L. 568. 여기서 ‘멜랑콜리’로 번역한 원문의 단어는 ‘melancholikon’으로 ‘멜랑콜리적’ 즉 형용사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또한 ‘흑담즙적’ 혹은 ‘흑담즙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19) Pigeaud(1981), p.124.

20) Pigeaud(1981), p.124.

학과 정치, 시나 기예에 뛰어난 사람들은 왜 모두 멜랑콜리인가?”²¹⁾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으로 전하지만 그의 저작은 아니며,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페리파토스 학파 내부에서 정리되어 전승되던 문헌이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상당히 후대에 작성되고 정리된 것으로 인정된다.

『문제』에서 흥미로운 점은 흑담즙, 즉 멜랑콜리와 관련된 증상이나 기질적 특징을 포도주를 마신 경우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다량의 포도주는 우리가 멜랑콜리에 부여하는 성격들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953a).” 포도주를 마시는 경우 마시는 양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처음에 조금 마셨을 때에는 조용히 있다가 좀 더 많이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더 마시면 용감하거나 무례해지고, 급기야는 미치거나 바보처럼 멍청해지기도 한다(953b). 멜랑콜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보이는 다양한 양상과 유사하다. 다만 포도주의 경우는 술기운이 남아 있는 짧은 시간 동안만 그런 특징을 나타내지만, 체질적인 특징은 지속적이다. 다만 양자가 특징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동일하다. 그것은 열을 조절하는 방식에 따른다. 또 포도주와 흑담즙이 만들어내는 유사한 특성은 그것들이 모두 공기를 많이 포함하는 데에서 유래한다. 예를 들어 포도주에서도 거품이 많고, 공기가 많은 폐와 가슴의 질병은 흑담즙이 원인이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다른 액체들 중에서도 우유나 기름은 거품이 없고, 또 같은 포도주 가운데서도 적포도주(melas)가 백포도주보다 거품이 많다.

여기서 저자는 포도주와 흑담즙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지칭할 때 저자는 ‘oinos’라는 포도주의 일반 명칭을 말하지만, 적포도주와

21) *Problemata* XXX,1, 953a.

백포도주를 구별해서 말할 때는 ‘검은(melas)’과 ‘백색(leukou)’을 구별해 말한다. 우리가 흔히 적포도주라 부르는 것을 저자는 ‘흑’포도주라고 말하고 있다. 즉 흑포도주의 ‘흑’과 흑담즙의 ‘흑’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저자는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히포크라테스가 흑수열의 검은 소변과 흑담즙의 유사성을 암시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에서는 적(흑)포도주의 검은 색과 흑담즙의 유사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히포크라테스는 열병에서 관찰되는 임상적 증상과 멜랑콜리를 연결하는 반면, 『문제』에서는 임상적 맥락과는 약간 유리되어 일종의 유비(analogy) 관계를 통해 상상적인 차원에서 적포도주와 멜랑콜리를 연결하고 있다. 일종의 ‘물질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신적 능력과 멜랑콜리를 연결짓는 자료가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편지』에 실려 있다. 이 역시 히포크라테스 시대보다 상당히 후대에 작성된 것으로 웃는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에 관한 전설을 담고 있다. 내용은 이러하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사는 도시 압테라의 사람들이 히포크라테스에게 편지를 보낸다. 자신들의 도시에 사는 유명한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미쳤으니 와서 그를 치료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혼자 뭔가를 연구하며, 모든 일에 대해서 웃는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이 없는 고요한 곳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멜랑콜리의 특징이라며, 그것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니며 학문에 몰두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답신했다. 그러나 와서 치료해달라는 요청이 거듭되자 히포크라테스는 결국 직접 와서 데모크리토스를 만난다. 데모크리토스와 대화를 통해 그의 웃음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철학자의 비웃음임을 알게 되고, 데모크리토스야말로 현자 중의 현자이며,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철학자 중의 철학자란 사실을 인정하게 된

다.²²⁾ 히포크라테스와 데모크리토스 사이에 일어난 가상의 대화를 다룬 이 에피소드는 정신적 능력이 뛰어난 현자는 멜랑콜리라는 『문제』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5. 의학적 개념으로서 멜랑콜리

위에서 우리는 멜랑콜리 개념이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말해주는 개념으로 분화해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등장하는 멜랑콜리에 대한 언급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의학적 맥락에서조차 멜랑콜리는 일관된 개념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 혹은 불일치는 히포크라테스 이후의 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원후 1세기경의 의학자 카엘리우스는 멜랑콜리와 광증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구별한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테미슨의 추종자들은 멜랑콜리를 광증의 한 종류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두 질병은 구별되어야 한다. 멜랑콜리에서는 식도가 주로 침범받고, 광증에서는 머리가 침범받는다.²³⁾

우리는 이 언급에서 멜랑콜리와 광증의 관계에 대해 이미 일치하

22) 여기서 오간 편지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실려 있지만, 위작으로 인정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가 직접 저술한 저작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작’이란 표현이 다소 어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히포크라테스 시대보다 훨씬 나중에 작성된 문헌임은 확실하고, 내용이 상당히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실린 편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번역은 다음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Wesley D. Smith, (ed. and trans.) *Hippocrates: pseudoepigraphic writings*, E. J. Brill, 1990.

23) Caelius Aurelianus, *Tardium passionum* I, 183.

지 않는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멜랑콜리와 광증을 별개의 질병으로 본 카엘리우스와는 달리 고대의 많은 의학자들은 멜랑콜리와 광증을 연결된 질병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아레테우스는 멜랑콜리는 광증의 일부이며, 광증의 초기 단계를 멜랑콜리라고 보았다. 반면 루푸스는 광증이 멜랑콜리의 초기 단계라고 보았다. 즉 즉 광증이 진행되면 멜랑콜리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멜랑콜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의학적 대상으로서 멜랑콜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다룬 의학자는 에페수스의 루푸스이다. 기원후 100년을 전후로 활동한 그는 『멜랑콜리에 대하여』란 저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저작의 우수함에 대해서는 이미 고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사실에서 알 수 있으나, 아쉽게도 원본은 소실되고 현재는 일부 단편들, 특히 아랍어로 번역된 단편들이 전한다.²⁴⁾

루푸스는 멜랑콜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개념화했다. 그보다 후대에 활동한 갈레노스의 멜랑콜리에 대한 분류나 개념화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루푸스의 것임이 인정되고 있다. 먼저 루푸스는 체액으로서 흑담즙과 질병으로서 멜랑콜리를 분명하게 구별했다. 한국어로는 흑담즙과 멜랑콜리를 구별해 쓸 수 있지만, 그리스어에서는 ‘멜랑콜리’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므로 양자 사이의 구별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

루푸스는 멜랑콜리를 인체의 원인 부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눈다. 상복부 멜랑콜리, 뇌 멜랑콜리, 전반적 멜랑콜리가 그것이다. 그는 주로 상복부 멜랑콜리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간과 위의 과도한 열로 인해 생긴다(Fr.7). 루푸스는 멜랑콜리를 원인 부위에 따라 나

24) 아랍어로 전하는 단편들과 관련 연구들을 묶은 다음의 책이 현재로서는 루푸스의 멜랑콜리를 다룬 가장 종합적 연구서이다. Rufus of Ephesus, *On Melancholy*, Peter E. Pormann, ed., Mohr Siebeck, 2008.

누는 것과는 별도로 선천적 멜랑콜리와 후천적 멜랑콜리로 나눈다. 선천적 멜랑콜리는 사람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주어진 체액의 배합 양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선천적인 멜랑콜리는 상대적으로 항구적인 외모에 그 영향이 반영된다. 그들은 보통 눈을 깜박이고 눈이 돌출되어 있으며 입술이 두껍다. 피부는 검게 변하는데, 이는 예상할 수 있듯이 과도한 흑담즙이 피부에 영향을 준 결과이다. 또 말을 빨리하고, 혀짧은 소리를 내고, 또 말을 더듬기도 하는데 이는 혀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Fr.11).²⁵⁾ 반면 후천적 멜랑콜리는 주로 적절하지 못한 음식 섭취로 인해 발생한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흑담즙성 피를 만드는 음식으로는 염소, 송아지, 당나귀, 여우, 개, 산토끼, 멧돼지, 달팽이, 참치, 고래, 돌고래, 진하고 어두운 색의 포도주 등이 있다.²⁶⁾

이제 멜랑콜리의 원인에 대한 설명에서 증상으로 넘어가 보자. 멜랑콜리인 사람은 행동이 느리고 기가 꺾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그러한 것이 아니다. 루푸스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황담즙의 부숙(putrefaction, 腐熟)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대담해지고 쉽게 화를 내다가 그것이 절정에 이르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이후 황담즙이 완전히 연소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침울해지며 두려움이 많아진다(Fr.11).²⁷⁾

멜랑콜리를 알 수 있는 초기의 증상들은 특정한 사물에 대한 공포, 불안, 의심 등이다. 또 평소보다 쉽게 화를 내거나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 등도 멜랑콜리를 말해주는 최초의 증상들이다(Fr.14).²⁸⁾ 멜랑콜리는 여자보다 남자에

25) Pormann ed.(2008), p.35.

26) Pormann ed.(2008), p.275.

27) Pormann ed.(2008), p.35.

28) Pormann ed.(2008), p.37.

게 많고, 노인에게는 거의 필수적이다. 노인에게는 즐거운 일이 별로 없고, 성격이 나쁘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기 때문이다(Fr.18).²⁹⁾ 멜랑콜리는 광견병과 비슷한 증상[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낸다(Fr.20).³⁰⁾ 그리고 학자와 같이 학문적인 주제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멜랑콜리가 되지 않기 어렵다(Fr.36).³¹⁾

루푸스가 언급하는 멜랑콜리의 증상들이 감정과 관련된 것이 많다면 갈레노스는 환시나 망상과 같이 더욱 심한 정신과적 증상을 멜랑콜리와 연결시킨다. 갈레노스가 드는 예를 살펴보면 자신이 토기라고 생각해서 부딪혀 깨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 자신이 수탉이라고 생각해서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치며 수탉의 울음소리를 내는 사람, 또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가 피곤해서 지구를 놓쳐 이 세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등 온갖 종류의 망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멜랑콜리라고 진단한다.³²⁾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이러한 정신과적 증상의 원인을 모두 뇌에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흑담즙이 뇌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장에서 생겨난 흑담즙의 거무칙칙하고 텁텁한 증기가 뇌로 올라가서 뇌의 사유기능을 교란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처음부터 흑담즙이 뇌에 쌓여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갈레노스는 흑담즙 자체가 가진 성질 못지않게 흑담즙이 어떤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그로 인한 증상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사실이다. 위장에서 생겨난 흑담즙의 증기가 눈에 가면 백내장이 생긴다고 설명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류

29) Pormann ed.(2008), p.41.

30) Pormann ed.(2008), p.41.

31) Pormann ed.(2008), p.47.

32) Pormann ed.(2008), p.283.

의 체액이건 뇌를 교란시키면 멜랑콜리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점액은 『신성한 질병에 관하여』 이후 뇌에 작용하여 간질을 일으키는 체액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갈레노스는 흑담즙도 간질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흑담즙으로 인한 간질은 경우에 따라 멜랑콜리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점액으로 인한 간질이 멜랑콜리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³³⁾ 멜랑콜리의 경우 교란된 기관인 뇌 못지않게 흑담즙 자체가 중요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멜랑콜리 치료에 대해 살펴보자. 이상에서 살펴본 멜랑콜리의 다양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원칙은 간단하다. 즉 이들 증상의 원인인 흑담즙을 배출시키는 것이다. 다만 어디에 있는 흑담즙을 배출시키느냐에 따라 사용되는 방법은 달라진다. 흑담즙이 피부와 함께 온몸에 차 있을 때에는 사혈을 통해 배출시킨다. 그러나 흑담즙이 위장에 있을 때에는 토사제를 사용하여 아래나 위로 배출시키거나 목욕을 하는 방법도 있다. 약물로는 헬레보레를 처방한다. 이 약물은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고스의 왕 프로이토스의 딸이 광증을 앓자 멜람포스가 처방하여 광증을 치유한 약물로³⁴⁾ 갈레노스도 이 사례를 언급하며 멜랑콜리의 치료제로 제시한 바 있다.³⁵⁾ 그밖에 예방적으로 흑담즙을 만드는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는 방법이 있다.

6. 결론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일원론과 이원론, 환원주

33) Pormann ed.(2008), p.271.

34) Ntafoulis et al.(2008), pp.258-264.

35) *De atra bile*, 5. 133, Kühn.

의와 비환원주의 사이를 왕복한다. 그리고 어느 입장을 취하건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 몸과 마음의 이원론은 ‘데카르트적 이원론’으로, 흔히 비난의 뉘앙스로 언급된다. 반면 인간의 정신현상을 뇌의 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인간 정신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전형적 비판은 이원론과 환원주의는 나쁜 것이라는 가치론적 신념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이론의 설명력이 지가 치론적 판단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기계론적 환원주의의 전제가 되는 것처럼 기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일원론이나 이원론이나는 환원주의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일원론과 이원론의 문제는 실체를 하나로 보느냐 두 개로 보느냐의 문제이고, 환원주의는 하위의 구성요소가 상위의 전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원론적 환원주의와 이원론적 환원주의가 모두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이원론적 비환원주의와 일원론적 비환원주의 역시 가능하다.

일원론과 이원론, 환원주의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빠짐없이 동원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들이 단순히 근대의 산물만은 아니다. 신체와는 독립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원론적 견해는 플라톤 철학의 전통인 반면, 영혼조차도 연장을 가진 물질적 실체로 보는 고대의 원자론이나 스토아주의의 일원론적 견해 또한 존재한다.³⁶⁾ 또 하위의 구성요소가 상부, 혹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환원주의로 정의한다면 고대의 원자론이나 4원소설은 이 정의에 부합한다. 문제는 일원론의 입장에 서는가 이원론의 입장에 서

36) 고대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철학적 논의는 다음의 연구서를 참고할 수 있다. John P. Wright and Paul Potter ed., *Psyche and Soma*,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는가가 아니다. 근본적 의문은 개념의 도식이 철학적 차원에서 인간을 설명할 때는 명료하지만, 과연 현실의 인간에 대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멜랑콜리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정형적 도식에 균열을 일으키는 개념적 사태이다. 멜랑콜리는 일원론적 인간 개념을 전체로 하는가 아니면 이원론적 인간 개념인가? 멜랑콜리는 환원주의적 개념인가? 답하기는 쉽지 않다. 답변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멜랑콜리 개념이 이러한 도식과는 무관하게 전개되고 사용된 것이 큰 요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학적 개념으로서 멜랑콜리는 육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에 모두 걸쳐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멜랑콜리는 단순히 의학적 증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인간 정신의 극한인 정신적 천재성을 설명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성은 멜랑콜리 개념이 등장하던 초기부터 멜랑콜리에 동반된다. 멜랑콜리는 흑담즙이란 생리학적 실체에 근거한다. 그런데 흑담즙은 다른 체액과 달리 가공의 실체이다. 상상력이 실체를 만들어내고, 그 실체가 다시 몸과 마음의 증상을 설명하며 나아가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멜랑콜리는, 또는 생리학적 실체로서의 흑담즙은 근대에 들어 그 역할을 다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과 정신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의 멜랑콜리는 2천 년이 넘게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정신적 개념으로서 멜랑콜리가 가지는 집요한 생명력은 어쩌면 그것이 흑담즙이란 생리학적 실체에 근거해 펼쳐진 상상력이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박종현 · 김영균 역(2000), 『티마이오스』, 서광사, 239쪽.
- 여인석 · 이기백 역(2011),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히포크라테스 선집』, 나남, 58쪽.
- Flashar, von H.(1966), *Melancholie und Melancholiker in den medizinischen Theorien der Antike*, Walter de Gruyter & Co., p.21.
- Jones, W. H. S.(1909), *Malaria and Greek History*, Manchester at the University Press.
- Jones, W. H. S.(1995), General Introduction, in *Hippocrates* vol. I, Loeb Classics, Harvard University Press, p. lviii.
- De Lacy, P.(2005), (ed., trans. and commentary). Galen, *On the Doctrines of Hippocrates and Plato*, Akademie Verlag.
- Ntafoulis, P., Gourzis, P., Trompoukis, C.(2008), Melampous : a psychiatrist before psychiatry, *History of Psychiatry* 19(2), pp.242-246
- Pigeaud, J.(1981), *La Maladie de l'Âme*, Les Belles Lettres, p.124.
- Pormann, P. E.(2008), ed. Rufus of Ephesus, *On Melancholy*, Mohr Siebeck.
- Siegel, R. E.(1968), *Galen's System of Physiology and Medicine*, S. Karger, pp.258-264.
- Smith, W. D.(1990), (ed. and trans.) *Hippocrates : pseudoepigraphic writings*, E. J. Brill.
- Wright, J. P. and Potter, P.,(2000), ed. *Psyche and Soma*,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Melancholy, its conceptual origin and development

- Mind-Body relationship in ancient medicine and philosophy

Yeo, In-Sok

Melancholy is the concept originated from the humor theory which dominated the Western ancient medicine. Black bile was considered to cause various pathological states of body, in particular, abnormal changes in emotions and behaviors. Apart from the other three humors, that is blood, phlegm, and yellow bile, black bile is a factious entity. Initially, melancholy was a medical concept. But, as it explains emotions and behaviors, it was also used in literature and arts to describe human emotions, especially 'melancholic emotion'. Melancholy is a good example that shows how the ancient thou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 and body. They thought that the human body and its physiological workings are the foundation of thinking and emotions of human being. In that sense, the concept of melancholy provides us with a lot of subjects to reflect on mind-body relationships,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philosophical issues in contemporary philosophy.

Key Words: Black Bile, Melancholy, Humoralism, Mind-body Relationship